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전남 함평군이 지역 대표 볼거리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입장권 사전예매에 돌입,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사전 판매 시작... 내달 23일까지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
함평군, 생태+체험형교육 '나빛파크' 첫선 기대 만발

함평군은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사전예매가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예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권을 사전예매할 경우 현장 판매 가격보다 10% 할인된 ▲어른 6,300원 ▲청소년 4,500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2,7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 단체 구매 시에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어른과 청소년 입장권에는 각각 2,000원과 1,000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축제장 내 부스와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 당일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나비 날리기 체험'과 '나비 먹이주기 체험' 등 나비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생태 교육과 체험형 오락을 결합한 복합 놀이학습 공간 '나빛파크'가 개장해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준공 후 축제 기간 첫선을 보이는 나빛파크는 나비 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와 어린이 중심의 놀이·교육 시설을 갖춘 공간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



연과 교감하며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운영 예정이다.

한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순천시,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관광도시 도약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 생태·문화 관광자원에 '감탄'

순천시가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지난 15일 여수엑스포항에 입항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 212명이 순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크루즈 370여 명이 순천을 방문한 바 있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순천 방문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크루즈 관광객은 순천시와 민간업체(에이치에스레저산업)가 협력해 유치 활동을 펼치며 성사됐다. 시는 민간 협력을 통해 해외 관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4월과 5월에도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이 추가로 순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며 생태와 역사, 전통이 어우러진 순천의 매력을 경험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봄 기운이 스며든 정원의 풍경과 꽃향기를 즐기

며 자연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순천만습지에서는 흑두루미와 철새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의 가치를 체감했고, 낙안읍성에서는 전통 가옥과 생활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해의 단체 관람객들은 국가정원 내 BBQ밭자리와 낙안읍성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특산물도 사가는 등 지역 관광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관광객들은 “순천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우 인상적인 관광지였다”며 “정원과 습지, 전통마을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 크루즈 관광객 방문은 순천의 생태 관광 자원이 세계 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외 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남 구례군이 고령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 6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1966년 이전 출생 60세 이상 군민 대상 무료 접종 지원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발병 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신경통,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비용이 비교적 높아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접종을 망설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구례군은 지난 2020년부터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높은 호응을 반영해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2026년 기준으로 1966년 이전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단, 이미 대상포진

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례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을 앓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는 접종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1-780-2912, 203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카메라 뉴스



‘일하는 곳 더 안전하게’ 장성군, 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장성군이 최근 청년센터 ‘아우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주민 55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인 최준영, 백순영 강사를 초빙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소개 및 준수사항, 현장 안전수칙 등을 함께 알아봤다. 실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지역 현안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특성상 주로 환경 정화나 공공시설 청소 같은 실의 작업이 많아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 단감 재배기술 교육 실시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지역 농업인들의 단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 재배 농가들이 효율적인 재배 방법을 배우고, 단감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영광군 감 재배 농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감 재배의 기초 관리 방법을 비롯해 △병해충 예방 및 관리 기술 △비료와 관수 관리 △수확 및 후처리 기술 등 농가들이 실제 재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졌다. 영광/이현식 기자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지역 자문위원회 개최

(재)장흥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지역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재단과 함께 물축제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 선출 결과 위원장에는 주재용 장흥군민회장, 부위원장에는 이성숙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배용zip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장흥군 제공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광안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6년 4월 26일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